

지금 왜 한국 독립전쟁사에 주목해야 하는가?

3·1운동은 일제 식민지 정책에 항거해 우리 민족이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대표적 인 독립운동이다. 오늘날 역사적인 100주년을 맞았다. 한 세기가 흘렀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적 의미가 각별하다는 것이다.

국내외에서 전개된 거족적인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독립이라는 목표로 뿔뿔 뿔쳐 외세에 항거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3·1운동 100주년 시점에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들이 주어졌다. 아니 이 과제들은 오래 전에 해결했어야 할 부분이었다.

지난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이후 독일, 이탈리아는 전범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지만 일본은 역사적으로 전범이 주류 세력으로 부활했다. 형식적 처벌 이후, 이들은 일본 우익의 주요 축을 형성했다. 그로 인해 침략전쟁의 정당성을 견지하는 군국주의 세력의 역사가 고스란히 유지된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독립사를 조명하는 책이 발간됐다. 우리 시대의 '문제적' 역사학자 이덕일이 펴낸 '한국 독립전쟁사의 재조명'은 일본 전범 세력이 재등장하는 과정과 우리의 독립전쟁사를 들여다본다.

일본에서 전범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부상한 것은 전후 동아시아 정치 질서 때문이었다. 당시 장계석이 이끄는 중국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하면서 중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한국 독립전쟁사의 재조명

이덕일 지음

국을 동아시아 반공 보류로 삼으려는 미국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대일본 정책도 바뀐다. 미국은 한반도 남쪽에서 친미 반공 정권을 수립하려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중국을 대신할 반공의 대타로 일본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인물이 기시 노부스케와 소리가 마쓰타로다. 기시 노부스케는 1948년 석방되면서 공직에서 추방됐다. 그러나 이후 일본재건연맹을 설립해 회장으로 취임하고 일본민주당 간사장, 내각 총리대신, 자민당 총재를 역임했다.

소피마 마쓰타로는 도쿄제대 법대를 나와 경시청 경무부 형사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그의 행태가 드러난 것은 1923년 관동대지진 때였다. 당시 그는 '조선인들이

일본 전범세력 반성없이 부활...식민사관 퍼뜨려

당시 동아시아 정치 질서 일본 우경화 부채질

3·1운동 100주년 안중근·신채호 사상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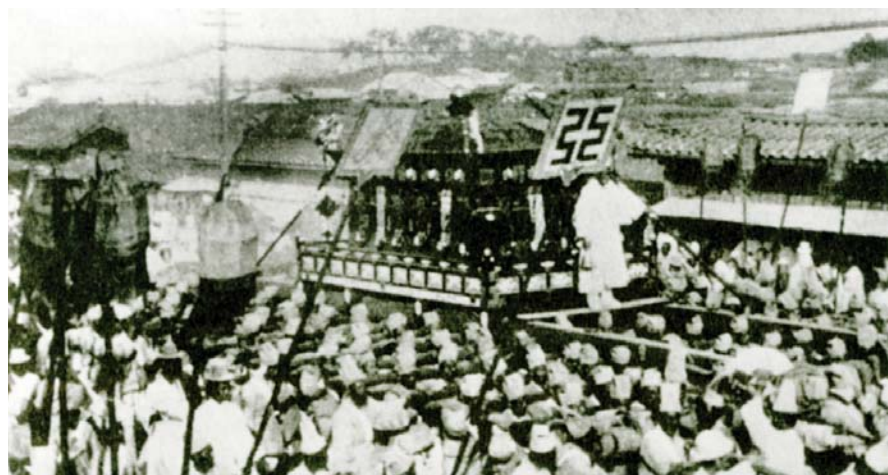
"모든 민족 독립·주권 지니는 것이 동양 평화"

폭동을 일으키고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조직적으로 퍼트렸다.

저자는 이들을 비롯해 청산돼야 할 군국주의 세력이 부활하면서 역사 도발이 반복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전범 출신 극우 재단은 한국인 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을 일본으로 불러들여 친일 한국인 역사학자군

을 만들었다.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전파에 종사했던 조선사관수회 출신들이 한국 사학계를 장악해 식민사관이 한국사 주요 이론으로 존속하게 된 상황과 맞물리는 지점이다.

이와 별도로 책에는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이들과 독립전쟁사의 주요 장



1919년 3월 고종 황제의 장례 때 상여가 종로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 고종 황제의 불어를 계기로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일제의 무단통치에 항거하는 3·1독립운동이 일어났다.

면이 소개돼 있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 사이의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는 아나키스트가 된 우당 이회영, 양명학 토대에서 공화제를 추구한 석주 이상룡을 통해 아나키즘 독립전쟁사를 고찰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공화제를 주장한 것은 이상룡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국 군주인 남은 고종과 그를 망명시킴으로써 독립의 물꼬를 트려 했던 '고종 망명 계획'도 살펴본다. 여기에는 기독교, 천도교, 유림, 불교계 인사가 망라됐고, 이들 일부는 조선의 청년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한 축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개화를 추구하면서 친정 수구

파를 중용하고 자주국을 지향하면서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고종의 모순된 행태는 성공하기 어려웠다.

현재 동아시아 평화는 큰 위협에 처해 있다. 일본은 극우파 역사관으로, 중국은 과거 자신을 침략했던 논리인 일제 식민사관을 역사 집착 도구로 악용한다.

저자는 위협받는 동아시아 평화를 되살리는 길은 안중근, 이회영, 신채호의 사상에 내재돼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민족이 독립된 상태에서 주권을 지니고 평등하게 지내는 것이 동양평화이기 때문이다.

〈만권당·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도쿄에서 열린 국동국제군사재판 법정에서 선 일본인 A급 전범들. 28명이 기소돼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만권당 제공〉

퍼스트 러브

시마모토 리오 지음, 김난주 옮김

미모의 아나운서 지망생 칸나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다. 충격적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제159회 일본의 나오키상 수상작인 시마모토 리오의 '퍼스트 러브'가 출간됐다. 17세에 데뷔해 군조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비상한 글재주를 보여 온 저자는 등단 후 18년 동안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네 번, 나오키상 후보에 두 번 올랐다.

이번 소설은 1인칭 화자이자 임상 심리 전문가인 유키가 출판사로 부터 사건의 논픽션 집필을 의뢰받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주인공은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으로 시동생이자 오래전 친구 사이였던 가쇼가 선임됐음을 알게 되고,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해 그와 함께 칸나의 과거를 추적한다. 그러나 피의자 칸나는 시종일관 모호한 진술을 하며 사건이 전모를 미궁으로 빠뜨린다.

소설은 살인사건을 추리는 형태로 전개되지만 작품의 저변에는 등장인물들의 유년기 학대 경험과 치유, 첫사랑의 상흔이 드리워져 있다. 유키와 가쇼는 저명한 화가인 아버지와 그림 속 소녀 같은 엄마 사이에서 성장하며 아름다운 외모로 대성 교실의 모델이 되곤 했던 칸나에게 밖으로 드러낼 수 밖에 없었던 마음의 상처가 있었음을 알아차린다.

여성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글쓰기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작가는 제목이자 주제이기도 한 '퍼스트 러브'에 다면적 해석을 열어놓는다. 오랜 시간 품고 있던 상처와 비로소 마주하게 된 등장인물들이 자신을 되찾아가는 여정에 오르는 동안, 독자들은 당위적 사랑에 물음을 던지게 된다.

〈해냄·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열여덟 살 이덕무

이덕무 지음, 정민 번역

"가령 마음이 불이라고 하자. 물욕은 땀같이, 염치는 물이다. 마음에 물욕이 생겨 이를 염치로 억제하지 못한다면, 땀같이 불길기 타오를 때는 물로도 이를 제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덕무는 18세기 조선의 문예부흥을 주도한 문장가이자 북학파 실학자다. 서얼 출신의 그는 절박한 가난 속에서 스승 없이 혼자 공부하며 바른 정신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 하루하루의 다짐을 적고 또 적었다.

이덕무가 젊은 날에 쓴 자기다짐에 대한 글을 한자리에 모은 '열여덟 살 이덕무'가 출간됐다. 고전학자인 정민 한양대 교수가 번역한 책에는 생활의 다짐과 공부의 자세를 스스로 끊임없이 되새기고자 했던 이덕무의 온유하고도 굳건한 품성이 배어나온다. 한마디로 그의 글은 '나를 바르게 하는 공부'라 할 수 있다.

책은 이덕무가 열여덟 살에서 스물 세 살 나던 젊은 5년간의 기록들이다. 메도팡이던 그는 생계를 위해 엄청난 양의 책을 통째로 베었다. 늘 공책을 놓아두고 좋은 글귀와 만나면 그때마다 옮겨 적었다. 스쳐지나가는 단상을 옮긴 글은 보석처럼 빛난다.

세월과 정신은 한 번 시들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눈앞의 시간을 아껴 소중하게 보내야 한다는 뜻을 담은 '세정석담', 공부하며 스스로 경계로 삼아야 할 내용을 짤막한 글로 써서 모은 '무인편', 쾌적한 인생을 살기 위한 여덟 단계 '적언전', 어린 두 누이를 생각하는 오빠의 마음을 담은 '매혼'의 글은 젊은 날 이덕무의 초상 그 자체다.

정민은 "이덕무는 내 배에 새겨진 이름이 되었다. 그를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짝하고 또 따뜻해진다"고 밝혔다.

〈민음사·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정학, 지금 세계에...

파스칼 보니파스 지음, 최민 옮김

1박2일 간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마무리 된 28일, 북미 두 정상의 공동합의문은 나오지 못했고 '하노이 선언'도 무산됐다. 지난해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북한과 미국의 대화 분위기 속에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지속할 여지는 남겼지만 세계 정세에는 긍정적인 흐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역 갈등이라는 명분하에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위협은 초계기 도발이라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가져오기도 했고 크림반도를 장악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정학,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의 지은이 파스칼 보니파스는 급변하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지정학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IRIS) 소장을 지내고 있는 파스칼 보니파스가 국제적 시각으로 세계를 날카롭게 분석한 책을 펴냈다. 그는 세계 질서의 이면을 예리한 통찰로 분석하며 국제정세 뒤에 숨겨진 진실과 모순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심도 있게 풀어냈다.

세계는 한반도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이런 세계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는 전혀 다르게 펼쳐질 것이다. 지은이는 끊임없이 읽고 계속되는 분쟁과 내전, 급격하게 재편되는 세계질서의 중심에 지정학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지정학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려는 다양한 시도와 학자들을 소개한 뒤 현 세계의 지정학적 주요 문제들을 4가지로 나눠 살펴본다.

〈가디언·1만6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미노산,
완적와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